

실무자의 근거출판 활성화를 통한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국내 적용 방안*

The Study on the Applying Methods for EBLIP in Korean Librarianship

표 순 희(Soon-Hee Pyo)**

목 차

- | | |
|--------------------|-----------------------|
| 1. 서론 | 3.2 근거 생산의 인식 |
| 2. EBLIP의 이론적 배경 | 4. 실무자들의 근거 출판 활성화 방안 |
| 2.1 EBLIP의 개념 | 4.1 조직의 지원 |
| 2.2 EBLIP의 내용 | 4.2 연구결과의 원활한 소통 |
| 3. EBLIP 적용 환경 분석 | 4.3 교육 |
| 3.1 실무자들의 근거 출판 현황 | 5. 결론 |

초 록

EBLIP는 '근거'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정확히 수행하고자 하는 실천 운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천 운동의 국내 적용을 실무자들의 근거 출판 활성화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였다. 국내 5종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분석을 통해 국내 실무자들의 근거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실무자들의 표적집단면담으로 근거 생산 장애 요인과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근거생산에 실무자가 저자로 포함된 경우는 26%를 차지하나, 실무자 단독으로 출판을 한 경우는 9.2%이며 단독 저자인 실무자들의 소속 기관은 대학도서관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적집단면담을 통해서 나타난 실무자의 출판 장애요인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근거출판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자들의 근거 생산 활성화 방안을 조직차원, 연구결과 소통의 차원, 교육차원에서 제안하였다. 조직차원에서는 업무 중 연구 활동의 보장, 연구결과에 대한 보상, 연구 소통의 차원에서는 실무자들이 연구 결과를 용이하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격의 저널 창간과 구조적 초록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실무현장에서 연구방법론 교육의 강화와 통합 연구의 한 방안인 체계적 고찰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ABSTRACT

EBLIP seeks to improve library practice by utilizing the best available evidence in conjunction with a pragmatic perspective developed from working experiences in librarian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EBLIP) in Korean librarianship with encouraging the practitioners to publish in their workplace. Content analysis on papers accepted for publication among five LIS journals and focus group interview were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ontexts and perceptions on the publishing activities of practicing librarians. While the proportion of papers that librarians wrote was calculated at 26 percent among the sample, the percentage of papers with librarians as a single author was only 9.2. Significant obstacles for librarians to publish papers due to organizational level were observed. The author suggests organizational support and better framework for communicating research based on practice such as publication of evidence-based practical journal and the adoption of structural abstract. The findings reinforce the importance of teaching rigorous research methods in workplace.

키워드: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 실무자, 연구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evidence-based practice, librarianship,
practitioner, research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 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54-H00007).

** 이화여자대학교 시간강사(shpyo88@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10년 7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10년 7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8월 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219-239, 2010. [DOI:10.4275/KSLIS.2010.44.3.2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보의 생성, 수집,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문헌정보학은 사회과학의 어느 학문분야 못지 않게 이론과 실무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새롭게 연구된 이론이나 원리가 실무에서 활용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업무 경험 및 정보들은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연구대상으로 활용된다.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EBLIP)는 실무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학문적 노력으로 생산되는 연구결과를 결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실무에 반영하고 서비스 향상을 꾀하려는 노력으로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EBLIP는 실무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과학적 근거의 활용 주체인 실무자들의 연구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실무자들의 연구가 이론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또한 실용 학문을 지향하는 문헌정보학에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실무 현장에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실무자가 업무에 연구결과를 활용하거나 출판을 하는 연구활동은 활발하지 않으며 연구자들과의 교류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Schläggl과 Stock(2008)와 Powell, Baker, Mika(2002)의 연구에서는 많은 실무자들이 동향과약이나 현장에서 발생하

는 문제해결을 위해 동료들의 경험에 더 의지하며 학술저널에 수록된 연구결과 보다 Library Journal, American Libraries와 같은 일반 잡지에서 제공하는 단편적인 정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와 연구 간의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활동 영역의 차이에서 오는 간극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생산되는 연구결과들이 학계와 현장에서 원활하게 교류 되지 않음으로써 실무와 학문 전체의 윈윈효과를 저해하는 악순환을 야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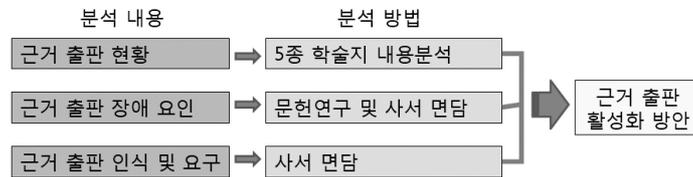
본 연구는 연구와 실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향상된 의사결정 및 서비스를 지향하는 EBLIP가 국내 문헌정보학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EBLIP의 실현은 문헌정보학계 및 현장 전반에 걸친 노력이 요구되나, 본 연구에서는 핵심 영역인 실무에 중점을 두고 실무자의 출판 활동 활성화를 통한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EBLIP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헌연구로 EBLIP의 개념과 발전과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EBLIP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실무의 중요성과 실무자의 연구 활동이 갖는 의미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실무자들의 근거 출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출판 환경 및 요구 사항을 분석하였다. 출판 환경은 <그림 1>과 같이 관련 저널의 내용분석과 문헌연구로 실무자들의 근거 출판



〈그림 1〉 국내 근거 출판 환경 분석

현황과 출판의 장애 요인을 살펴보고 면담을 통해 실무자들의 근거 출판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국내에서 출판되는 근거의 현황 분석을 위해 2008년에서 2009년, 최근 2년간 국내에서 출판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 중 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5종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근거생산의 주체인 저자의 신분, 소속 기관, 근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근거 출판의 장애요인은 Turner(2002), Haddow와 Klobas(2004), 이은철과 김갑선(2004)에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들과의 표적집단면담을 통해 사서들이 느끼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실무자들의 출판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셋째, 국내 실무자들의 근거 출판 현황, 장애 요인, 인식과 같은 출판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근거 출판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EBLIP 실행을 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무자의 출판활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증진, 문제해결, 의사결정을 위해 연구문헌을 읽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는 일련의 연구 활용을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근거로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EBLIP의 이론적 배경

2.1 EBLIP의 개념

EBLIP는 초기에 'evidence-based librarianship (EBL)'이라고 표현하다가 최근에는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EBLIP)'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evidence-based information practice(EBIP)'라고도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중심'이라는 용어가 'evidence-based'로 함축되어 구체적인 학문 분야에 따라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 근거중심간호(evidence-based nurse, EBN), 근거중심교육(evidence-based education, EBE), 근거중심사회복지(evidence-based social work, EBSW) 등으로 지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로 사용하였다(표순희 2009).

EBLIP와 관련된 용어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EBLIP의 개념적 정의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Eldrege(2002, 2006)는 EBLIP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최상의 근거를 활용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연구 전략이며 연구와 정보탐색을 포함하는 지식발전의 포괄적 접근 방법이라 하여 연구 측면에서 EBLIP를 조명하였다. Crumley와 Koufogiannakis(2002)는 문헌정보학으로부터 나온 연구 결과

를 조합함으로써 도서관 실무의 전문성을 높여려는 방법이며, 과학적으로 생산된 근거를 통합하고 도서관 실무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근거를 결합하는 과정이라 하여 실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복지분야의 Roberts, Yeager와 Regehr (2006)는 실무(practice)와 과정(process)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EBLIP는 최상의 근거와 실무자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결합된 근거 활용 과정이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가치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달성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정의들을 바탕으로 EBLIP의 핵심적인 요소를 도식화해보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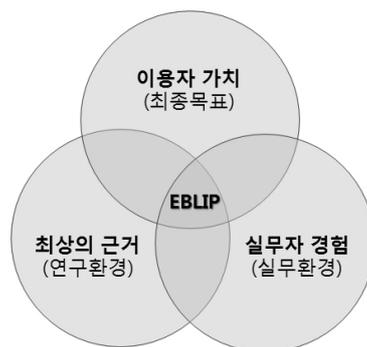
2.2 EBLIP의 내용

‘근거중심’이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EBLIP 핵심은 근거이다. EBLIP에서 근거는 문헌정보학에서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정책의

수립, 결정, 수행과 같은 일련의 활동과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정보로 이는 연구논문, 미 출판된 회색문헌, 인터넷 정보, 각종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EBLIP에서의 근거는 단순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한 보편적 활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EBLIP에서의 근거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을 기반으로 수행된 신뢰성이 높은 연구의 결과를 의미한다.

EBLIP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간주하는 것은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¹⁾이다. 체계적 고찰은 특정 주제에 대한 관련된 연구의 광범위한 검색과 그것들을 미리 정해진 명확한 방법에 따라 검토하고 통합하는 리뷰이다. 또한 관련된 연구를 파악하고 그것들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들을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통합하고 요약하는 연구논문이기도 하다(Jadad 1998; Khan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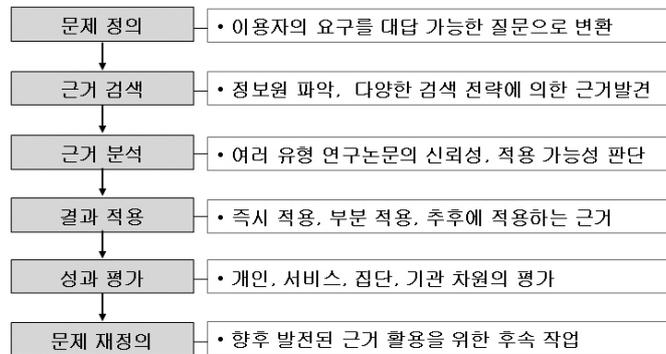
EBLIP는 <그림 3>과 같이 문제의 정의, 근



<그림 2> EBLIP의 핵심 요소

출처: Gibbs(2003.14) Evidence-based practice for the helping professions

1) 체계적 고찰은 표순희(2009) 연구에서 ‘비평적 리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 분야에서도 도입된 ‘근거중심’ 연구에서 용어의 혼란을 없애고자 박명화(2006)에서 사용한 용어로 수정하여 기술하였다.



〈그림 3〉 EBLIP의 과정

출처: 표순희(2009).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내용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거 검색, 근거 분석, 결과 적용, 성과의 평가, 문제의 재정의라는 여섯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제의 발견, 문제의 공식화, 가설의 설정, 가설 검증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결과의 해석으로 수행되는 연구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EBLIP는 실무의 관점에서 결과의 적용과 평가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근거의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순희(2009)에서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EBLIP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BLIP의 첫단계는 정보 요구를 '명확히 구조화된 질문' 혹은 '구조화된 질문'으로 바꾸는 문제 정의 혹은 문제 제기의 단계이다. 이 단계의 목적은 '대답 가능한 질문'으로 변환시키는 것인데 질문의 내용을 공식화하고 기술하는 것은 연구 설계의 방향을 결정하고 요구되는 근거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거의 발견을 위해 정보원을 파악하고 다양한 검색전략으로 근거를 검색한다. EBLIP에서 근거의 검색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문헌, 회색문헌, 문헌정보학 분야 이외의 관련 학문분야의 문헌을 기반으로 한다.

셋째, 근거 분석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근거에 대한 신뢰성 평가, 적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EBLIP에서 근거의 평가는 Booth와 Brice(2004)가 제시한 근거 평가 항목으로 수행되는데, Powell과 Connaway(2004, 23-24)가 제시한 연구 논문의 평가기준에 비해 실무지향적인 적용 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석 대상 연구들의 데이터 통합과 메타분석 등 통합된 결과분석 작업이 이루어진다.

넷째, 결과의 적용 및 활용이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근거는 다양한 적용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우가 많고 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Koufogiannakis와 Crumley(2004)는 근거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용자 집단, 적시성, 비용, 정치적 상황, 엄격성으로 이들이 자신의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성과 평가는 EBLIP 수행 과정상의 평가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근거로 실무가 향상되고 효과가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3. EBLIP 적용 환경 분석

본 장에서는 실무자들의 출판 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무자들의 출판 현황, 장애 요인, 인식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출판 현황은 국내 학술지의 내용분석을 통해 실무자들의 근거 생산량과 근거를 생산하는 실무자의 기관 환경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국외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실무자 출판 활동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또한, 실무자의 출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유형 및 관종의 실무자를 표적집단면담을 위한 표본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근거 생산에 대한 인식 조사는 사서들이 체감하는 출판 활동의 장애요인, 근거생산에 관한 인식,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출판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기초 정보로 활용하였다. 근거 생산의 장애 요인과 실무자들의 요구사항은 문헌 및 표적집단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장애 요인 분석은 관련된 주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행된 이은철, 김갑선(2004)의 연구에 대한 고찰와 표적집단면담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사서들의 출판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 또한 표적집단면담을 통해 파악하였다.

3.1 실무자들의 근거 출판 현황

EBLIP에서 근거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한 보편적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방법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를 수록하는 대표적인 출판물은

저널이라 할 수 있는데, Ali(1985)는 저널을 수록된 정보의 특성에 따라 간략하고 일반적인 기사를 수록한 대중저널, 연구결과 및 리뷰 등을 수록한 중도저널, 고유의 독창적인 연구수행 결과를 수록한 학술저널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들의 근거 출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Ali의 저널 분류 기준에서 중도저널과 학술저널의 범주에 속하여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또한 합리적인 연구방법으로 수행하는 근거를 수록한다고 판단한 국내 5종의 저널을 선정하였다. 합리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수행 기준은 심사라는 리뷰 과정의 유무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근거 생산 현황 분석에서는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협회지, 기관지, 소식지에 수록된 논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분석 대상이 된 근거는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도서관정보학회지, 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연구 5종에 수록된 연구논문이며, 총 분석이 된 근거는 5종의 학술지 2008년에서 2009년 2년간 수록된 연구논문 총 598건이다.

국내 실무자들의 근거 생산 정도, 근거가 생산되는 도서관의 환경, 생산되는 근거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저자의 신분, 소속 기관, 연구 유형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항목은 수록 논문들의 저자와 논문의 유형이다. 저자는 저자의 신분과 소속기관의 유형, 논문의 유형은 순수 연구논문과 정책 과제를 통한 논문의 여부이다. 유형의 구분은 각 논문의 첫 페이지 하단에 기술된 저자들의 신분, 소속기관, 논문의 설명을 통해 이루어졌다.

3.1.1 저자 분석

국내 5개 학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의 저자는 논문 첫페이지 하단에 밝혀진 저자들의 신분과 소속기관을 통해 분석되었다.

먼저, 전체 저자 중에서 실무자의 기여 정도를 살펴보았다. 저자의 신분별로 구분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논문이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사서 및 직원과 같이 실무현장에 근무하는 저자에 의한 연구가 26.0%를 보였다. 이외에 강사, 박사(박사논문), 박사수료 및 과정생, 학부 및 석사생들의 비율이 19.3%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사서이면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사서이면서 강사인 경우와 같이 2.8%를 차지하는 복수신분을 모두 고려한 수치이다.

수록된 논문의 제1저자의 신분은 교수가 1저자일 경우가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서 및 직원이 23.3%로 전체 저자의 신분 2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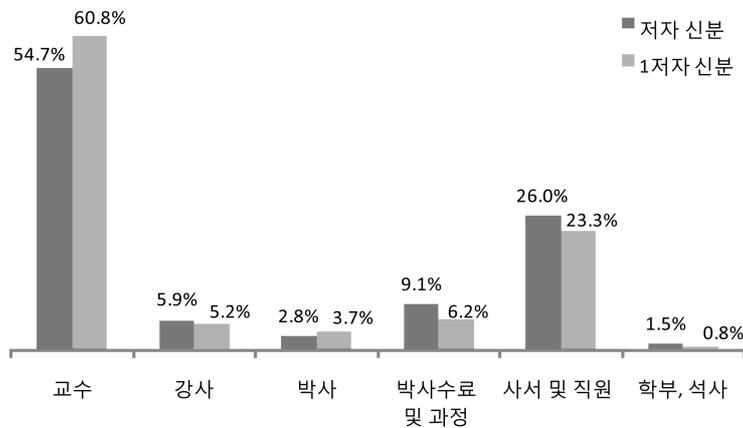
총 598건의 논문 중에서 단독 저자의 논문은 297건으로 전체 논문의 49.7%를 차지하였다.

단독 저자 중에서 실무자의 논문은 <그림 5>와 같이 9.2%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실무자이면서 박사 혹은 박사과정과 같은 학생의 신분인 복수신분 2.8%를 제외하면 6.8%만이 순수한 실무자의 연구논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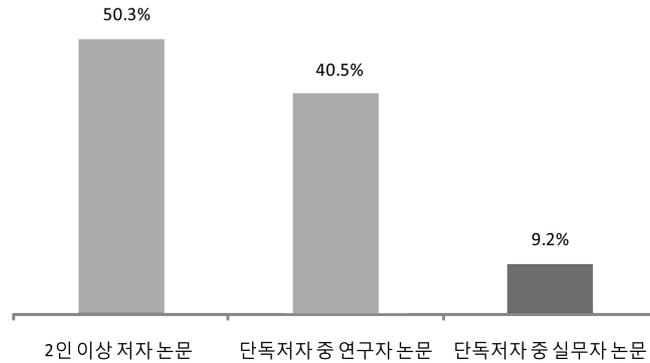
3.1.2 소속기관 분석

실무에 있는 저자들의 소속기관을 분석하였다. 소속기관의 환경을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정부기관 및 연구소, 기업체 등으로 구별하여 살펴봄으로써 저자들이 연구하고 근거를 생산하는 환경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많은 연구 및 근거 생산 활동이 가능한지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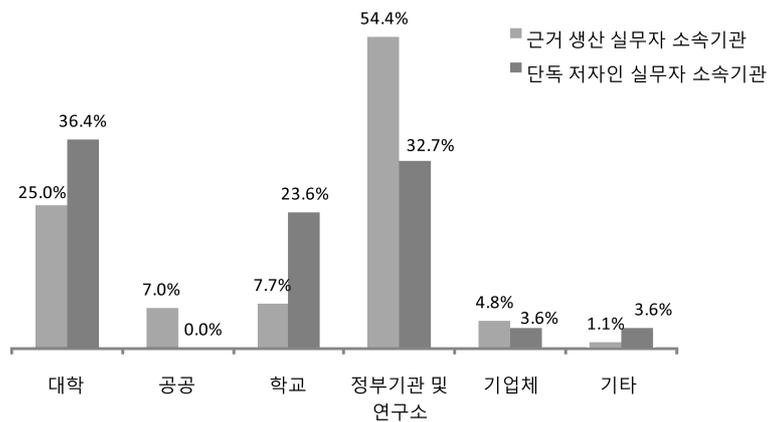
<그림 6>은 <그림 4>의 근거생산자의 신분에서 사서 및 직원으로 분석된 저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기관 및 연구소가 5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대학도서관이 25%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이 7.7%, 공공도서관이 7%, 기업체가 4.8% 순으로 나타났다. 실무에 있으면서



<그림 4> 근거 생산자 신분



〈그림 5〉 단독 저자 중 실무자의 논문



〈그림 6〉 근거 생산 실무자의 소속기관

논문생산에 기여한 모든 저자들이 정부 및 연구소에 50% 이상 소속되어 있다.

반면, 실무자 1인이 단독으로 연구논문을 생산한 경우, 대학도서관 소속 실무자가 단독으로 연구논문을 생산한 비율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기관 및 연구소가 32.7%로 2위를 나타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에 소속된 실무자의 비율이 23.6%이고 기업체 및 기타 기관이 3.6%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 소속된 사서들이 단독으로 연구논문을 생산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도서관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3.1.3 근거의 속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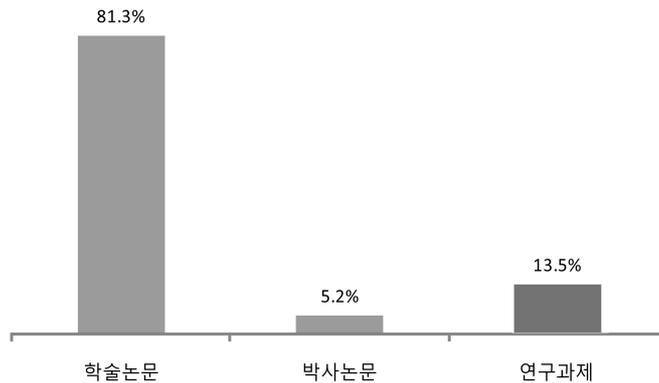
수록된 근거의 속성 분석은 전체 연구 논문에서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구로 간주할 수 있는 정책 및 연구 과제를 기반으로 한 연구 논문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이어졌다. 이를 위해 논문 하단에 기술된 연구 용역 및 정책 과제 결과의 수정, 보완, 축약 등이 명

시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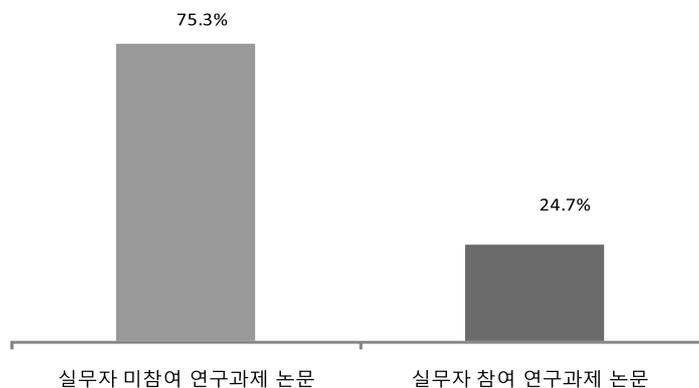
생산 기원을 통해 살펴본 근거의 속성은 <그림 7>과 같이 일반적인 학술논문 집필을 통해 생산된 논문이 81.3%이며 박사학위논문이 축약되어 수록된 비율이 5.2%이다. 또한 다양한 정부기관 및 단체의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된 연구결과로 이루어진 논문이 13.5%를 차지하고 있어 학술 연구논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 과제를 통해 생산된 근거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림 8>과 같이 연구

과제를 통해 생산된 근거에 저자로서 실무자가 포함된 경우는 전체 81건 중에서 20건(24.7%)로 나타나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고,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과제 및 정책과제 등에 실무자가 실질적인 연구인력으로 포함되지 않는 '갑'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를 낮은 참여율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생산된 근거의 속성



<그림 8> 실무자가 연구과제 논문에 저자로 포함된 경우

이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근거의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 생산자와 전체 근거 생산에서 실무자들의 참여 비율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근거 생산에 기여한 실무자들의 비율은 26%로 전체 연구 생산자의 1/4을 차지한다. 이를 좀 더 엄격히 살펴보면, 1저자로서 실무자가 참여한 연구는 약 21%로 약간 낮게 나타나고 실무자가 단독으로 생산한 연구는 9.2%로 10%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술 지향적 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저자 구성이 실무자와 학계의 연구자가 동일하게 나타난 Hildreth, Aytac(2007)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실무자이면서 학생이거나 강사와 같이 복수의 신분을 가진 2.8%의 실무자를 제외하면 순수한 실무 현장에서 생산되는 연구 논문은 6.4%를 차지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근거를 생산한 실무자들의 기관 환경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에서 5저자까지를 포함한 모든 저자들의 기관은 정부 및 연구소와 같이 국가기관에 속한 실무자들의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공공, 학교, 기업체와 같이 국가 및 연구기관이 아닌 곳에 속한 실무자들의 근거 생산 기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으로, 단독으로 근거생산에 기여한 실무자들의 소속기관은 대학도서관에 속한 실무자들의 비율이 36.4%로 1위로 나타나 대학 환경이 개별적인 근거 생산 환경에 유리한 것과 대학도서관 사서가 Ali가 분류한 중도저널이나 학술저널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Ali 1985; Booth 2009).

셋째, 근거의 생산 기원을 통해 보았을 때, 다양한 기관에서 정책과제 등으로 수행된 연구결

과를 토대로 나온 연구과제 논문은 전체 근거에서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과제 논문이 실무환경에서 요구되는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면, 연구과제 논문에 기여한 실무자들의 참여 현황을 통해서도 근거생산의 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 수행되는 연구과제에 실무자의 참여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3.2 근거 생산의 인식

대학도서관은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연구결과의 생산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갖추었으며(Booth 2009; Koufogiannakis와 Crumley 2005) 이러한 사실은 국내 실무자 집단에서도 대학도서관 사서가 단독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EBLIP의 실현을 위해 대학도서관과 같이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환경을 기반으로 출발하고자 근거 생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적집단면담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도서관 3곳의 사서 6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근무기간 내에 1회 이상의 학술대회 발표 혹은 학술지 출판의 경험이 있는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갖춘 사서로 하였다. 면담은 사무실내 회의 공간 및 식당에서 실시하였으며 모든 면담 내용은 녹취하여 아래 항목에 따라 구별하였다.

질문항목은 다음과 같은 4개의 반 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여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 일상 업무 수행에 있어 연구결과의 활용 및 출판에 대한 요구
- 일상 업무 수행에 있어 연구결과의 출판 경험
- 연구결과의 활용과 출판에 장애 요소
- 실무자의 출판 활성화에 요구되는 요소

3.2.1 실무에서 연구결과의 출판에 대한 요구와 경험

실무자들이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이유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지식 습득, 새로운 서비스개발이나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또한, 실무자들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정보를 위해서 학술논문을 읽기도 하지만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는 해외의 사례연구를 통해 얻는다. 반면, 실무자들이 국내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실무에서 활용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학술적 연구결과는 이론적이며 실험적 연구가 많아 실무와의 연관성과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A도서관의 사서의 말을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많은 연구가 이론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무와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실무와 어떻게 연관되며, 현장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해요. ‘정책’, ‘국가○○’, ‘모형’ 등의 거창한 키워드로 현장에 ‘하달’하는 중앙집중식 연구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출판이 요구되는 경우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홍보와 같이 조직 운영

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출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 공모전과 같은 공식적인 조직의 활동의 하나로 수행하는 경우, 셋째, 사서 개인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면서 생산되는 연구들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의 경우는 출판과 발표가 사서 업무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무를 통해 얻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출판으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대부분 업무 수행의 일부로 서비스 사례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유를 통해 실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데, 실제 실무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투고한 B도서관의 사서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내가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여 다른 기관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거나 똑같은 절차를 어렵게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고 싶거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연구결과를 생산하고 싶어요.”

“기관지나 학회지에 출판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향상이 있나요? 항상 된다고 보다, 서비스한다고 내세우고 선도한다는 사명감 등이 홍보가 되는 거죠. 공식화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 이거 한다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도 그렇게 해주길 원하죠. 그래야 서로 서로 업무하기가 편하니까요”

특히, 개인 학업과정의 일부로 수행된 출판 활동 보다는 기관의 요구와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이 업무 시간 내에 수행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개인의 학업을 병행한다 하더라도 출판하는 논

문은 업무와 연관이 있다. A도서관, C도서관 사서들의 출판 경험을 보면,

“제가 출판했던 경우는 개인이 학위취득을 위해 현장실무를 연구와 접목시켜 논문을 썼던 경우가 있었고, 상부의 요청으로 기존 업무를 정리해 공모전 등에 제출해야 했던 것.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업무를 개발하여 새로운 성과를 낼 때 공유차원에서 출판욕구를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서관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하는 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게 훨씬 더 출판하기 수월하죠...”

“○○○연구의 경우 우리 대학에서 수고하여 만든 서비스와 그 적용 사례를 여러 사서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발표하지 않기에 좀 아까웠다고나 할까... ○○○연구는 여러 대학에서 고민하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 생각으로 발표했습니다.”

3.2.2 연구결과의 출판 장애 요인 및 요구

근거 생산의 장애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실무자들의 근거 활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연구에서 실무자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연구방법의 결여, 무관심과 같은 사서의 태도와 능력, 학술용어의 두려움, 적용의 어려움과 같은 연구와 의사소통의 문제, 시간과 자원과 같은 조직의 제약으로 들고 있다(Koufogiannakis and Crumley 2005).

Turner(2002)는 뉴질랜드 사서들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를 통해 사서들이 시간적 제약, 사서들 간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지식공유, 연구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 연구용어의 이해와 적용의 어려움, 사서 개인의 지적 유용성의 문제들이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Haddow와 Klobas(2004)는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실무와 연구의 격차를 <표 1>과 같이 11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표 1> 실무와 연구 간의 격차 요인

격차 유형	내용
지식(Knowledge gap)	연구자와 실무자들 사이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면 더 지식을 쌓을 것이다.
문화(Culture gap)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서로 다른 업무 형태, 다른 업무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의 동료 그룹을 통해서만 소통한다.
동기(Motivation gap)	실무자는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관련성(Relevance gap)	연구자와 실무자는 다른 유형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적시성(Immediacy gap)	실무자의 문제는 학술연구자의 문제에 비해 빠른 해결을 요한다.
출판(Publication gap)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연구출판이 적고 실무자에 의해 쓰여진 것도 적다.
읽기(Reading gap)	연구자와 실무자는 서로의 문헌을 읽지 않는다.
용어(Terminology gap)	연구자와 실무자는 서로에 의해 이해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다.
활동(Activity gap)	소수의 실무자만이 연구에 접한다.
교육(Education gap)	실무자는 연구를 접할 지식과 기술을 갖지 않고 있다.
시간(Temporal gap)	실무자는 연구를 읽고 수행할 시간이 없다.

* 출처: Haddow and Klobas(2004)

국내에서는 이은철과 김갑선(2004)이 대학 도서관 사서의 연구 활용 장애요인을 조직체, 사서, 연구, 의사소통 4가지 영역에서 29개 척도로 사서들의 인식을 측정한 바 있다. <표 2>와 같이 각 영역에서 상위로 분석된 장애요인은 연구와 실무간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실무 수행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지 못하다'로 나타났다. 이어 '연구가 반복 수행되지 않는다'이고, 3위는 '업무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행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5위안에 든 장애요인은 모두 연구, 의사소통, 조직체 영역에서 나타났다.

위의 연구가 비록 연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결국, 연구 결과의 출판이 연구활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사서들이 인식하는 연구 활동의 장애요인은 사서 개인이 아니라 연구, 연구결과의 소통, 조직과 같은 실무자 외적인 문제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무자들의 출판 활동은 조직의 환경과 연구결과의 소통에 크게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A도서관 사서들의 면담들을 보면,

“실무에 있어서 특별히 연구결과의 출판이 요구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처럼 연구실적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연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한국에서는 현장 업무 수행 중 연구활동을 하는 것은 업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예요. 그리고, 업무에 시달리는데 사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내어 연구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서들의 연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위에서도 여러 가지 언급하였지만 또 하나가 바로 로테이션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사서들은 하나의 포지션에서 수년, 수십년 동안 일하기

<표 2> 사서들이 실무에서 느끼는 연구 활용의 장애요인

영역	척도	평균점수 (100점 기준)	순위
연구	연구가 반복 수행되지 않는다.	51.3	2
	연구 보고서/학술지기가 빨리 발표되지 않는다.	28.3	8
	연구에 방법론적 부적절성이 있다.	24.7	10
의사소통	실무수행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지 못하다.	57.5	1
	연구가 실무와 관련이 없다.	38.0	5
	연구보고서/학술지기가 읽기 쉽고 명확하게 쓰여져 있지 않다.	37.1	6
사서	내가 실무를 변화시켜도 그 혜택이 적다고 생각한다.	31.8	7
	나는 연구에 대해 의논할 지식 있는 동료들과 떨어져 있다.	25.6	9
	나에게 실무를 변화시킬 공식적 의무가 없다.	23.8	11
조직체	업무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행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	45.1	3
	시설이 연구 수행에 적합지 않다.	41.5	4
	나는 업무절차를 변경시킬만한 충분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41.5	4

* 출처: 이은철, 김갑선(2004)에서 일부 발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를 반복해보고 연구해보고 개발해보는 실험을 가할 수 있는데 비해, 한국의 사서들은 3년 내지 5년마다 로테이션이 되므로 인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 파악할 때쯤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 업무를 개선하고 개발할만한 노력을 축적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러한 로테이션 문제가 포지션 정착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 사서'는 배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마다 과목을 바꾸는 전문의가 있나요? 로테이션 하는 사서, 그냥 generalist 일 뿐이지요. 따라서 특정분야에 대해 파고들 수도 없고 핵심을 잡고 갈 수도 없고, 이로 인해 연구 활동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의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서들이 자신의 의욕 부족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를 들었으나 많은 경우 시간의 부족, 동기화, 조직 운영과 같이 업무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였다.

“인사고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업무 향상에도 기여되는 바는 없다. 다만 개인적인 연구능력 고취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연구논문을 발표했던 경험이 매우 도움이 된다.”

“혜택이나 성과 같은 동기화가 필요한듯해요. 사서들에게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나 그 학교 사례를 어딘가에 발표 좀 해달라고 하면 다들 손사래를 치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런 거 나는 못한다고 한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할 터인데.... (중략) 내 일을 다음 담당자에게 연결해 주거나 타 기관에도 소개해주는 것이 개인이나 조직에 어떤 성과 또는 혜택을 가져다준다면 연구 활동이 활발해질 듯해요.”

4. 실무자들의 근거 출판 활성화 방안

4.1 조직의 지원

Powell, Baker, Mika(2002)는 업무시간 안의 연구시간의 정도, 내부의 지원, 연구 방법론에 대한 습득의 정도가 실무자의 근거 생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Finne, Frane, Stewart(2000)는 실무자들의 연구는 전적으로 경영의 문제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앞서 면담에서 사서들이 인식하는 연구의 장애요인을 대표적으로 조직의 운영에서 찾았던 것처럼 국내 문헌정보학계 실무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차적 영역은 조직이라는 것을 지지한다.

조직 측면에서 실무자의 근거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기관의 경영자 혹은 도서관 관리자의 인식의 전환과 확대가 요구된다. 모기관의 경영자나 도서관 관리자는 사서 업무의 특수성 즉,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닌 다양한 정보요구를 갖는 이용자를 상대하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연구 활동을 업무의 일부분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실무자의 연구 활동과 출판은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여 업무 시간 내에 발생하는 학술 발표와 같은 연구 활동, 진학과 같은 학습에 요구되는 시간적인 배려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무자 연구 장애의 주요인이 시간의 부족으로 나타난 것은 업무시간 동안 일어난 연구 수행과 관련된 일을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 충족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서 개인의 연구 활동이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은 표적집단면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출판 경험이 도서관의 대표적인 서비스의 홍보나 공모전 참여와 같이 도서관차원에서 수행된 연구의 산물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조직 운영에 실무자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개인이나 부서의 인사고과나 부서평가에 이러한 실적을 반영하는 것과 같이 연구 활동과 출판에 따른 혜택 제공 장치를 마련하여 연구 활동의 동기를 확실히 제공하고 정보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사기진작을 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다. 도서관의 업무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와 정보기술, 이에 따른 이용자 요구의 변화에 항상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이에 따른 서비스 및 이용자 연구를 위한 다양한 재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연구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지식은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석사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교육 이외에 정규 학위과정 입학과 같은 상급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으

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장에서 수행되는 공식적인 연구 활동에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실무자들은 다양한 연구과제나 정책과제의 발주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무에 필요한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모니터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과제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은 행정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위한 보조적인 역할이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내부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어 연구자로서 학술적인 참여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과제들이 위탁 기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니 만큼 단순한 정보제공이라는 수동적인 차원에서의 참여가 아닌 연구가 수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연구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 파트너의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2 연구결과의 원활한 소통

이미 생산된 연구결과가 실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활발히 이용되어야 하지만 앞서 면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출판은 실무자들의 효과적인 연구결과 활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원활한 소통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EBLIP에서는 2006년에 창간된 OA 저널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를 통해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연구결과의 활용과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한다. 저널의 주요 구성은 연구논문, 근거의 요약, 실

무에서 근거의 활용, 실무활용의 측면에서 수행한 기존 연구논문의 리뷰로 되어 있는데 연구논문과 근거의 요약은 심사과정을 거쳐 수록되며 나머지는 심사절차 없이 편집정책에 따라 수록된다. 근거의 요약은 이미 생산된 연구논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출하는 작업이며 실질적으로 근거 활용 사례를 수록함으로써 실무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인 연구결과를 실무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며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근거를 생산, 활용,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커뮤니티로는 활동의 결과가 기록으로 남는 저널의 형태가 가장 적합하며 이 저널은 OA 저널인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와 같이 실무자와 연구자가 공동으로 근거를 생산하고 생산된 근거의 활용과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저널 창간은 관련 단체에서 기존에 출판되고 있는 기관지나 협회지를 EBLIP를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성화 하여 그 구성과 운영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전략적 실천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출판되고 있는 학술지 연구논문에 구조적 초록(structured abstracts) 작성을 통해 학술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성과, 정책적 의미, 활용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구조적 초록은 1987년 의학분야에서 처음 적용되기 시작하여 심리학, 사회과학 여러 학술지에서 채택하였으며 현재 <그림 9>의 Emerald와 같이 대형 출판사를 통해 출판되는 많은 저널들이 이와 같은 구조적 초록을 사용하고 있다.

구조적 초록은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독자는 초록 자체만으로 연구

Abstract
Purpose -- To examine the different discourses put forward on how the value of a public library can be measured and question their efficacy.
Design/methodology/approach -- Discusses some of the methodologies used to evaluate public libraries and offers a viewpoint on the desirability of valuing public libraries from an economic standpoint.
Findings -- The paper argues that focussing on the economic value of an institution like the public library runs the risk of demeaning its social and intellectual foundations. Additionally that obsession with issue statistics leads to an incorrect focus for libraries about their potential impact on their community.
Practical implications -- The paper should be of interest to anyone researching the topic of public libraries and how they are perceived, as it offers a viewpoint on how libraries should be valued by society.
Originality/value -- The paper offers an alternative viewpoint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some of the mainstream evaluation methods used to justify the value of public libraries.
Keywords Value added, Public libraries
Paper type Viewpoint

<그림 9> Emerald 출판사 저널의 구조적 초록 예

결과를 파악하고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출판사 라이선스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원문에 비해 배포 및 접근 가능성이 높다(Hahs-Vaughn and Onwuegbuzie 2010). 이러한 구조적 초록은 저자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 작성되어 제공 정보의 일관성이 없고, 초록만으로 연구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통적인 초록을 대체함으로써 실무에서 신속한 연구결과와 파악과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결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연구내용의 요약, 정책적 제언, 후속 연구 등으로 분리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특히, 정책적 제언과 같이 실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기술함으로써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3 교육

EBLIP에서 교육은 연구방법론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Watson-Boone(2000)은 실무에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연구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연구방법은 실행연구(action research), 사례연구(case study research), 평가연구(evaluation research), 실험연구(experimental research)가 해당 된다고 하였다.

체계적 고찰은 특정 주제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을 통합하고 이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리뷰논문 단일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뢰성 있는 근거로 간주된다. 일찍이 근거중심 운동이 확산된 의학계에서는 1993년 설립된

The Cochrane Collaboration을 중심으로,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000년에 설립된 The Campbell Collaboration을 중심으로 체계적 고찰의 생산에 힘쓰고 있다.

국내에서 실무자들의 연구 활동과 근거의 생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 제공하는 연구방법 교육은 대부분이 연구방법의 기본적인 개념만을 다루고 있다. 이 또한 석사이상의 교과과정을 개설하는 학교들 중 연구방법론을 필수로 지정한 학교는 전체의 30%에 불과하다(박소연 2002). 현장에서의 사서교육을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서교육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 직무 및 서비스 수행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무능력 향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의 서비스 결과를 체계적인 근거로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실무자들의 연구 활동과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의 다양화를 위해 대학에서는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교육을 필수로 지정하고 연구방법론을 기본적 개념과 함께 추리통계 등을 통해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고급과정을 연계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연구방법론 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직무교육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행연구, 실험연구, 사례연구 등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교육이 시급하며, 실무 환경에서 최상의 근거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 고찰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분석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5. 결론

EBLIP는 의학계에서 1990년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근거중심'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근거'를 중시하고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과 같은 결정을 정확히 수행하고자 하는 일종의 실천 운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천 운동의 국내 적용을 위한 방안을 실무자들의 출판 활성화를 통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실무자들의 근거 생산 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들의 근거 생산 장애 요인, 사서들의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심사를 거쳐 출판되는 국내 5종의 학술지에 수록된 실무자들의 논문 현황을 보면, 근거 생산에 참여한 전체 실무자는 약 26%이며, 1저자로 참여한 실무자는 21%, 실무자가 단독으로 출판한 경우는 약 6.4%로 나타났다. 근거를 생산한 실무자의 소속기관 환경을 보면, 정부기관 및 연구소 소속 실무자가 전체 50%를 상회하였고, 단독으로 근거를 생산한 실무자가 속한 기관은 대학도서관 소속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환경이 실무자가 근거를 생산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의 근거 생산 장애 요인은 필요성 부족, 조직에서의 인정, 순환근무로 인한 전문성 확보 기회의 부족, 시간의 부족과 같은 조직운영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사서들이 근거 생산을 하는 상황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고, 근거 생산 활성화를 위해 조직차원의 동기부여 정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자들의 근거 생산 활성화 방안을 업무의 일부로 연구활동의 보장,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보상 정책

마련과 같은 조직차원의 지원, 실무자들이 연구 결과를 용이하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인 새로운 성격의 저널 창간, 구조적 초록, 세분화된 결론의 기술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실무현장에서 연구방법론 교육의 강화와 통합 연구의 한 방안인 체계적 고찰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무자의 근거 출판 활성화 방안들은 실무자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중요하나 모기관 및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조직된 관련 단체들의 관심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모기관 차원에서는 실무자들의 연구 활동이 결국은 업무향상으로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 활동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관련 전문단체나 협회는 학계 및 현장에서 생산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손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장은 기관에서 출판하는 기관지나 협회지 등의 저널의 성격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특성화 하는 것도 좋은 실천 방안이라 하겠다.

또한, EBLIP는 연구와 실무 간의 근본적인 괴리를 극복함으로써 실무에 연구결과의 활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무자의 근거 생산의 활성화 방안은 학계와 실무 현장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학회지에 수록된 연구결과 요약물 실무지향적인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 현장에서 연구 활동 활성화는 학계의 출판 환경을 실무에서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성공적인 결실은 조직이나 사서와 같은 실

무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무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통합적인 EBLIP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EBLIP에 대한 지식제공의 차원에서 볼 때,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EBLIP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EBLIP 수행과 관련한 사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계 및 현장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둘째, 실무자의 근거 생산 활성화를 위해 실무자 측면의 장애요인, 인식조사뿐만 아니라,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결과 소통의 활성화 및 교육과 같은 부분에 대한 제안을 위해서는 이들 각각에 대한 심도 있는 개별 연구가 수행되어 EBLIP 수행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실무자의 근거 생산 현황을 5대 학회지를 통해서만 조사하였으나 추후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관지 및 협회지와 같이 실무자들이 주로 투고하는 저널의 근거 생산 현황을 동시에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서로의 연구결과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봄으로써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연구문화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박명화. 2006. 『근거중심 간호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군자출판사.
- [2] 박소연. 2002. 연구방법론 과목의 교육내용 및 현황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2): 1-17.
- [3] 이은철, 김갑선. 2004.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구활용 장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78-91.
- [4] 표순희. 2009.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내용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351-370.
- [5] Ali, S. Nazim. 1985. "Library science research: some results of its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Libri*, 35(2): 151-162.
- [6] Booth, Andrew. 2009. "A bridge too far? stepping stones for evidence based practice in an academic context." *New Review of Academic Librarianship*, 15(3): 3-34.
- [7] Booth, Andrew, & Anne Brice, ed. 2004. *Appraising the evidence, in Evidence-based practice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a handbook*. London: Facet Publishing.
- [8] Crumley, Ellen, & Denise Koufogiannakis. 2002. "Developing evidence-based librarianship: practical steps for implementation."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ies Journal*, 19: 61-70.
- [9] Eldredge, Johathan. 2002. "Evidence-based librarianship: what might we expect in the years ahead?" *Health Information Libraries Journal*, 19(2): 71-77.

- [10] Eldredge, Johathan. 2006. "Evidence-based librarianship: the EBL process." *Library HiTech*, 24(3): 341-354.
- [11] Finnie, Elizabeth, Barbara Frame, & Ian Stewart. 2000. "Research by New Zealand library practitioners." *New Zealand Libraries*, 49(3): 83-87.
- [12] Haddow, Gaby, & Jane E. Klobas. 2004. "Communication of research to practic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losing the gap."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6: 29-34.
- [13] Hahs-Vaughn, Debbie, & Anthony J. Onwuegbuzie. 2010. "Quality of abstracts in articles submitted to a scholarly journal: a mixed methods case study of the journal research in the school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2:53-61.
- [14] Hildreth, Charles R., & Selenay Aytac. 2007. "Recent library practitioner research: a methodological analysis and critique."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236-258.
- [15] Jadad, Alejandro R., David Moher, & Terry P. Klassen. 1998. "Guides for Reading and Interpreting Systematic Review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2: 700-704.
- [16] Khan, Khalid S., Regina Kunz, Jos Kleijnen, & Gerd Antes. 2003. *Systematic reviews to support evidence-based medicine: how to review and apply findings of healthcare research*. London: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Press Limited.
- [17] Koufogiannakis, Denise, & Ellen Crumley. 2004. *Applying evidence to your everyday practice*. Edited by Andrew Booth, & Anne Brice. *Evidence-based practice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a handbook*. London: Facet Publishing.
- [18] Powell, Ronald R., & Lynn Silipigni Connaway. 2004. *Basic research methods for librarians*. Westport: Libraries Unlimited.
- [19] Powell, Ronald R., Lynda M. Baker, & Joseph J. Mika. 2002.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actitioners and researc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4: 49-72.
- [20] Roberts, Albert R., Kenneth Yeager, & Cheryl Regehr. 2006. *Bridging Evidence-Based Health Care and social work: how to search for, develop, and use evidence-based studies*. Edited by Albert R. Roberts, & Kenneth R. Yeager. *Foundation of evidence-based social work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1] Schlögl, Christian, & Wolfgang G. Stock. 2007. "Practitioners and academics as authors and readers: the case of LIS journals." *Journal of Documentation*, 64(5): 643-666.
- [22] Turner, Kathlyn. 2002. "Do information professionals use research published in LIS journal?"

68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2002 August 18-24. [Glasgow: IFLA].

- [23] Watson-Boone, Rebecca. 2000. "Academic libraries as practitioner-researcher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6(2): 85-9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yeong-Hwa Park. 2006. *Geungeojungsim Ganhoui Ihaewa Jeokyeong*. Seoul: Gunjachulpansa.
- [2] So-yeon Park. 2002. "Research Methods and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3(2): 1-17.
- [3] Eun-Chul Lee, & Kapseon Kim. 2004. "Barriers to University Librarians' Research Uti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1): 78-91.
- [4] Soon-Hee Pyo. 2009. "A Study on the Content and Methodology of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1): 351-370.